**교제와 나눔**

**40-16호 2023년 4월 16일**

**\*\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\*\***

**ㆍ3월 나라주일:** 오늘 예배 후 각 나라별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.

**ㆍ매일성경 5,6월호 받아가세요.**

**ㆍ말씀일기 교실:**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 예배 후, 60분x5회

**ㆍ라합1 나라모임:** 4월 18일(화) 10시 유근임 님 가정

**ㆍ연합어린이여름성경학교 1차 준비모임:** 4월 22일(토) 11시 쾰른한빛교회당

**ㆍ남선교회친선체육대회 MVP:** 1)발야구-김좌겸, 2)축구-이승열, 3)탁구-최성호

**ㆍJC캠프:** 우리 교회 11명, 총 105명이 참석하여 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.

**ㆍ예장유럽선교대회:** 총 138명이 참석하여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.

유튜브 채널 ‘키즈 워십’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*ㆍ병상:** 손혜숙

**ㆍ생일축하:** 김하은, 박성준, 박성희, 이윤석, 신재혁

**\*\* 함께 기도합시다 \*\***

1)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.

2)모이기에 힘써,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.

3)코로나19를 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.

4)공의와 평화의 주여,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.

5)튀르키예-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씻어주소서.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일/민14:11-25 | 월/민14:26-45 | 화/민15:1-21 | 수/민15:22-41 |
| 목/민16:1-15 | 금/민16:16-35 | 토/민16:36-50 | 일/민17:1-13 |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성경 300독 대행진: 208독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4월 16일** | **4월 23일** | **4월 30일** | **5월 7일** |
| **예배기도** | 권순아 | 허지은 | 김호정 | 어린이주일 |
| **안내위원** | 예배부 | | | |
| **헌금위원** | 김종권, 김호정 | | | |
| **애찬위원** | 밥상 넷 | 밥상 다섯 | 밥상 여섯 | 밥상 일곱 |



**“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”**(시편 98:1)

주일예배 14:00 Mutterhauskirche

유초등부 14:00 Mutterhauskirche

청소년부 14:00 Mutterhauskirche

청년부 성경공부 15시 30분 Teestube

토요기도회: 07:00 Teestube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 누구든 어디서나

**담임/ 손교훈 목사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교육/ 이동훈 목사** HP. 01525-2367 629

**교육/** **박승은 목사** HP. 0157-3845 5550

**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**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8일 창립 **뒤셀도르프선교교회**

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**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****üsseldorf**

**주 일 예 배**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송/Eingangslied ……..……... 왕이신 나의 하나님 ….…………………. | 다함께 |
| ※예배부름/Eingangsgebet …………..……….......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인도자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9장 2절 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...…. 교독문 22번 .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...…….......... 212장 ……….…………….….…......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.....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한상철 장로 |
| 찬양/Chor 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생명 진리 은혜 되신 ……..................... | 찬양대 |
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………... 창세기 26:1-33 …….….…….……….…. | 인도자 |
| 설교/Predigt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**이삭-우물 파는 사람** ………………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| 찬송/Gemeindelied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08장 .……………….....…..….……. | 다함께 |
| 봉헌/Kollekte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교제/Bekanntmachung………………….……..…..………………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………..……….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|  |  |
| **※ 표는 일어섭니다.** |  |
|  |  |

**\*\*교회 구좌\*\***

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s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

**▶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민11장 ‘불과 병’ ◀**

모든 것에 감사할 일이다. 작은 일에 감사할 일이다. 민11장은 ‘불’ 이야기로 시작되어 ‘병’(34절의 “심히 큰 재앙”은 ‘전염병’으로 번역할 수 있다) 이야기로 끝난다. 이것은 원망이 불을 가져오고 탐욕이 병을 가져왔다는 말씀 아닌가.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불과 병 이야기 사이에는 ‘만나와 메추라기’ 이야기가 자리잡고 있다. 한 마디로, 만나만 먹고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“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”(10)했다는 말씀이다.

얼핏,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처럼 보인다. 실제 이들이 광야에서 잘 먹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. 하지만, 가만히 들여다 보면, 문제는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. 그것은 “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”(4)로부터 시작된 탐욕이, 전염되듯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. 문제는 무엇보다도 “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…”(5) 하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었다.

사실, 복잡한 해석을 하지 않아도,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하다. 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생생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, 오늘 나의 하나님은 결코 막연한 신이 아니다. 하나님은 오늘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다. 밥 한 공기, 빵 한 조각에도 감사하라고. 끼니를 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, 그 자체로 감사하라고. 광야 나그네 길에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, 그것이 거듭 ‘고기 타령’이 되어서는 “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”(약1:15) 말씀하신다.

더군다나, 오늘도 수 많은 동포들이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땅과 수 많은 이웃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동아프리카를 생각한다면, 내가 먹는 만나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지언정, 결코 불평할 수 없다. 그 만나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오히려 큰 감사요 복이 아닌가!